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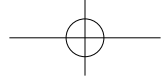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차준희(한세대)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에서 <루아흐>(רוּחַ)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는 378회 나오
고, 아람어로는 다니엘서에서만 나타나는데 여기서 총 11회 언급된다.¹⁾
구약성서에서 <루아흐>는 15종류로 세분된다.²⁾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루아흐>는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A. Even-Shoshan(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 Sefer Ltd, 1993), 1063-1066; R. Albertz/C. Westermann, רוּחַ ruah Geist, *THAT II*, ³1984, 726-753, 특히 727; S. Tengström/H.-J. Fabry, רוּחַ *ThWAT* 7, 1993, 385-425, 특히 393.
- 2) J. J. Stamm/Z. Ben-Hayim/B. Hartmann/Ph. H. Reymond,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con zum Alten Testament*, Lieferung IV (Leiden: E. J. Brill, 1990), 1117-1121.



바람/폭풍으로서의 <루아흐>, 둘째, 사람의 <루아흐>(숨, 영, 생명력), 셋째, 하나님의 <루아흐>(영, 생명력)로 나뉜다.³⁾ <루아흐>가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는 문맥이 결정한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는 <루아흐>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 여기서 학자들의 본문이해는 서로 다른 길로 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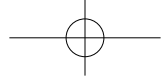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이 연구는 <루아흐>가 사용된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본문에 집중한다. 또한 하나님의 영의 활동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에 국한하여 분석을 하려고 한다. 이 주제에 관하여는 몇몇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지만,⁴⁾ 이들 연구는 관련 본문을 지나치게 많이 다루다 보니 논리적인 빈틈이 드러나곤 한다.⁵⁾ 여기서는 창조의 영으로 간주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만을 선택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처음 창조(creatio prima)에 나타난 영

1) 창세기 1장 2절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루아흐는 그 물 위에서 비행하고 있었다(사역).”

- 3) 민영진, 「구약성서의 영(rûach) 이해」, 『신학사상』 31집, 1980, 617-637, 특히 622; H. Schüngel-Straumann, *Rûach bewegt die Welt: Gottes schöpferische Lebenskraft in der Krisenzeit des Exils*, Stuttgarter Bibelstudien 151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2), 27; 차준희, 「구약사상 이해」(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55-96, 특히 61-62.
- 4)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의 영”, 『신학지남』 239, 1994(봄호), 11-30; W. Hildebrandt,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t, Massachusetts: Handrickson Publishers, 1995); C. J. H. Wright, *Knowing the Holy Spirit through the Old Testament* (Oxford, UK: Monarch Books, 2006).
- 5) 김정우는 창세기 1장2절; 시편 33편 6-7절; 이사야 40장 12-14절; 창세기 2장7절; 시편 104편 27-30절; 이사야 34장 16-17절을 다루고, W. Hildebrandt는 창세기 1장2절; 이사야 40장13절; 시편 33편6절; 잠언 1장23절; 욥기 26장13절; 창세기 1장26-27절; 시편 104편30절; 욥기 27장3-4절; 33장4절; 34장14절; 창세기 2장7절을 분석하며, C. J. H. Wright는 창세기 1장1-2절; 시편 33편6-9절; 욥기 26장12-14절; 시편 104편27-30절; 욥기 34장14-15절; 시편 104편27-30절; 욥기 34장14-15절; 창세기 2장7절; 욥기 32장8절; 33장4절; 창세기 6장3절; 전도서 12장7절을 관련 본문으로 선택하여 주석하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창세기 1장 2절은 <루아흐>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는 구절이다. 여기서 <루아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로 남아있다.⁶⁾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폭풍’ 혹은 ‘하나님의 생명력’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단어의 용례로만 본다면 세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에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⁷⁾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구절의 <루아흐>는 대체적으로 ‘바람’ 혹은 ‘영’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대 영어 번역본들도 나뉘어 있다. NRS, JPS, RSV는 ‘바람’으로, KJV, NIV, NAS는 ‘영’으로 번역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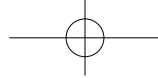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그런데 이 구절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예를 들어, 슈텍(O. H. Steck)은 여기서 <루아흐 엘로힘>은 ‘강한 바람’ 혹은 ‘하나님의 바람’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생동성과 권능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루아흐[필자의 표기임]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견지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생동적이며 그리고 활동적인 하나님의 호흡이나 숨이 아니며...오히려 말하기와 의 유사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며, 그 자체로 아직은 창조의 활동이 아닌, 질서화의 창조적 선언으로 형식화될, 그것과 함께 3절의 창조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그런 숨쉬기(Atem)인 것이다.”⁸⁾

6) S. Tengström/H.-J. Fabry, *윗글*, 405.

7) H. Schüngel-Straumann, *윗글*, 30.

8) O. H. Steck,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Studien zur literarkritischen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n Problematik von Genesis 1,1-2,4a*, FRLANT (Göttingen: Vandenhoeck, 1981), 235-236.



슈텍은 이 구절을 구체적인 창조의 행위가 시작되는 창세기 1장 3절에 앞서서 창조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고르기’로 이해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대한 창조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숨고르기를 했다고 보는 것은 좀 어색해 보인다.⁹⁾ 또한 호흡이라는 번역은 능동 분사로서 중요한 움직임을 의미하는 2b절의 <메라헤페트>(“운행하다”)와 호흡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어렵다.¹⁰⁾ 이러한 주장은 이후 연구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으며 지지자도 미미한 상태로 머물러있다.

보다 강력한 주장은 <루아흐>를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¹¹⁾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 대열에 서 있다. 폰 라트(G. von Rad)는 그의 유명한 창세기 주석에서 <루아흐 엘로힘>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으로 해석한다.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폭풍’(Gottesstrom) 즉 두려움을 일으키는 폭풍(참조.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은’은 단지 최상급의 의미로 쓰이고 있음)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 진술은 혼돈의 기술에 속하고 있으며, 아직은 창조 활동에 이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창조에서 하나님의 영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 그런 우주적인 의미를 갖는 하나님의 영의 개념은 구약성서 전체에 걸쳐서 낯선 개념이다.”¹²⁾

여기서 <엘로힘>은 형용사의 최상급으로 이해된다.¹³⁾ 창세기 연구에

9)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의 영”, 15-16.

10) W. Hildebrandt, 위글, 35.

11) H. Rechenmacher, “Gott und das Chaos: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von Gen 1,1-3,” ZAW 114, 2002, 1-20, 특히 13.

12)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Genesis*,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21987), 30.

13) 구약성서에서 <엘로힘>이 최상급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면, 창세기 23장 6절의 ‘하나님의 방백’은 ‘아주 높으신 방백’, 사무엘상 14장 15절의 ‘하나님의 떨림’은 ‘아주 큰 떨림’, 시편 36편 6절의 ‘하나님의 산’은 ‘장엄한 산’, 이사야 51장 3절의 ‘하나님의 동산’은 ‘빠어난 동산’, 요나 3장 3절의 ‘하나님 앞에 큰 도시는’ ‘아주 큰 도시’를 가리킨다. B. K. Waltke/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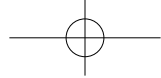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관한 한 최고의 주석가로 평가되는 베스트만(C. Westermann)도 스미스(J. M. P. Smith)의 연구¹⁴⁾에 의존하여 <엘로힘>을 최상급으로 이해하며, <루아흐>를 바람으로 해석한다. 베스트만은 많은 우주기원론들에서 바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하나의 근거로 끌어들이고 있다.¹⁵⁾ 슈미트(W. H. Schmidt) 역시 오경의 아람어역본인 옹켈로스 타르굼(Targum Onkelos)이 <루아흐>를 바람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에 힘을 보탠다.¹⁶⁾ 이들에 의하면, 태초의 세계는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고 있던 ‘원시적 혼돈의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2절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창조 사역을 통해 질서와 조화의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황량하고 공허한 원시적인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¹⁷⁾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여기서 <루아흐 엘로힘>의 <엘로힘>을 최상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문맥상 적절하지 못하다. 창세기 1-2장의 창조기사에서 엘로힘은 예외 없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고유명사로만 사용되고 있다.¹⁸⁾ 이 점은 웬햄(G. J. Wenham)도 이미 올바르게 지적한 바 있다. “성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루아흐 엘로힘> 또는 <루아흐 야웨>라는 구절이 결코 ‘거대한 바람’(great wind)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¹⁹⁾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 1990), 268.

- 14) J. M. P. Smith, *The Use of Divine Name as Superlatives*, (AJSL 45, 1928/29), 212-220. C. Westermann, *Genesis 1-11*,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31983), 149에서 재인용.
- 15) 예를 들면, S. Moscati, “The Wind in Biblical and Phoenician Cosmogony,” *JBL* 66 (1947), 305-310; C. Westermann, *Genesis 1-11*, 149.
- 16) W. H. Schmidt,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von Genesis 1, 1-2, 4a* WMANT 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31973), 83.
- 17) 이희환,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창세기 1-11장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52-53.
- 18) A. Schüle, *Die Urgeschichte(Gen 1-11)*, Zürcher Bibelkommentare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9), 35.
- 19) G. J. Wenham,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1987), 17.



둘째, 창세기의 원역사(창 1-11장)에서 <루아흐>가 원시적 혼돈의 상태를 유발하거나 가리키는 경우는 전혀 없다.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를 바람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은 2b절의 <베루아흐 엘로힘 메라헤 페트 알-페네 하마임>("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이라는 표현은 2a절("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의 혼돈의 상황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것으로 본다. 즉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는 혼돈의 상태를 발생하거나 강화하는 바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역사 부분에서 <루아흐>는 창세기 1장 2절; 3장 8절; 6장 3절, 17절; 7장 15절, 22절; 8장 1절에서 총 7회 언급된다. 이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을 제외하면 다음의 두 구절에서만 <루아흐>는 분명히 바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들이 그 날 ‘바람’<루아흐>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 3: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루아흐>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창 8:1).

여기서 창세기 3장 8절은 자연적인 바람을 가리키고, 8장 1절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람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우리의 논의와 관계된 본문은 후자이다. 창세기 8장 1절의 <루아흐>는 조절되지 않는 혼돈의 세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혼돈을 몰아내고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 물의 양을 조절한다.²⁰⁾ 원역사에서 <루아흐>가 바람으로 쓰일 경우, 혼돈의 상황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혼돈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

20) A. Schüle, 윗글, 35.



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b절의 <루아흐>를 바람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구절의 맥락에서 볼 때 설득력이 없다.²¹⁾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절의 <루아흐 엘로힘>은 마지막 남은 선택지인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²²⁾ 단어의 개념 정의는 사전적 의미보다 문맥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루아흐 엘로힘>과 연결된 동사 표현과 관련하여 이 맥락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여기서 <루아흐 엘로힘>은 ‘운행하다’(<메라헤페트>)라는 단어와 연결된다. 이 단어의 어근 <라하프> 동사는 구약 전체에서 단 3번만 등장한다(창 1:2; 신 32:11; 렘 23:9).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동사는 피엘(Piel)형으로 사용된다. 신명기 32장 11절은 이와 동일한 형태로 쓰인 유일한 본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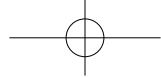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קָרַח)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신 32:11).

이 본문에서 아웨는 자신의 새끼 위를 맴도는 어미 독수리로 비유된다. 이에 따르면 <라하프> 동사는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³⁾ 창세기 1장 2절에서 <라하프> 어근이 분사형으로 사용되고, 또한 주어 <루아흐>에 상응하여 여성형으로 나온다. 이 또한 신명

21) H. Schüngel-Straumann, *윗글*, 80-81.

22) L. Neve,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70; M. Görg, "Religions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r Rede vom 'Geist Gottes'," *Wissenschaft und Weisheit* 43, 1980, 129-148, 특히 140-141; L. Ruppert, *Genesis: Ein kritischer und theologischer Kommentar. 1. Teilband: Gen 1,1-11,26*, Forschung zur Bibel 70, (Würzburg: Echter Verlag, 1992), 67;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적 영", 17; H. Schüngel-Straumann, *윗글*, 83-84; W. Hildebrandt, *윗글*, 35; C. J. H. Wright, *윗글*, 14;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0집, 2013, 117-143, 특히 122.

23) H. Schüngel-Straumann, *윗글*, 82.



기 32장 11절의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 새와 잘 어울린다. 이렇게 자기 새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능을 보여주는 <메라헤페트>는 비인격적이고 차가운 이미지인 바람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생명 친화적인 하나님의 영의 활동에 더 가깝다.²⁴⁾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과 무형체와 혼돈으로부터 우주(cosmos)를 형성하는 것이다(creatio ex chaos). 신명기 32장 10-12절에서 어미 독수리에 비유된 야웨께서 ‘자기 손의 작품’인 어린 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처럼, 야웨는 혼돈, 어둠, 그리고 무형체로부터 아직은 형성되지 않았던 우주를 직접 자신의 역동적인 영으로 둘러싸고 있으면서 변화시키신다.²⁵⁾ 즉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현재의 땅이 수면 위로 나타나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될 때까지, 혼돈과 공허로 뒤덮인 땅, 깊음과 어둠이 뒤덮인 땅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조절하고 있음이 암시적으로 묘사된다.²⁶⁾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는 창조의 삼중원리를 보여준다.²⁷⁾ 첫째, 하나님의 <루아흐>는 혼돈의 물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창 1:2b). 둘째, 그 이후 창조적인 말씀<다바르>이 선포된다(<바요메르 엘로힘 웨히 오르>),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 1:3a). 셋째, 마침내 빛 <오르>이 모습을 드러낸다(<바예히-오르>, “그리고 빛이 있었다,” 창 1:3b). 이들은 논리적으로 연결된다. <루아흐>-<다바르>-<오르>, 영-말씀-현실, 창조적인 영-창조적인 말씀-창조의 현실은 하나님의 창조역사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즉 <루아흐>와 <다바르>가 만나자 <오르>가 등장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비가시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가진 신비한 창조

24) L. Ruppert, 윗글, 67.

25) L. Neve, 윗글, 70.

26)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의 영”, 17-18.

27) S. Tengström/H.-J. Fabry, 윗글, 407.



의 영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적인 말씀은 이 창조적인 에너지를 통하여 실체가 된다. 그 결과 태초의 빛이 탄생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공급하는 창조의 영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창조를 실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역하여 세계를 창조한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이 창조의 원동력이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이 된 것이다.²⁸⁾ 하나님의 영은 창조 사역에 밀접하게 관여하며, 온 우주에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든다.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를 이루며 현재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든 것은 말씀 사역과 더불어 영 사역의 결과이다.²⁹⁾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과 영의 공동사역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은 말씀의 동역자이다.

2) 시편 33편 6절

“야웨의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입의 루아흐로 모든 것들(천체)이(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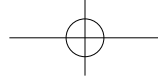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시편 33편은 특히 창조주이신 야웨를 강조하는 찬양시이다. 이 시편의 창조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독특하다.³⁰⁾ 이 시는 “시편 전체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이 가운데 특히 시편 33편 6-9절이 창세기 1장 1절-2장 4a절에 의존하고

28) W. Hildebrandt, *윳글*, 35.

29)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의 영”, 19.

30) N. deClaisse -Walford/R. A. Jacobson/B. L. Tanner, *The Book of Psalm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310.

31) D. Jacobson, “Psalm 33 and the Creation Rhetoric of a Torah Psalm,” in: R. L. Foster/D. M. Howard, Jr.(eds.), *My Words Are Lovely* (LHB/OTS 467; New York: T. & T. Clark, 2008), 107-120, 특히 107.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³²⁾ 시편 33편 6-9절은 창세기 1-2장을 시적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말씀 창조를 강조한다(4절, 6절, 9절).

시편 33편 6절은 창세기 1-2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를 말한다. 시편 33편 9절(“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는 마치 창세기 1-2장의 말씀 창조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편 33편 6-9절은 거대한 피조세계를 창세기 1장과 같은 순서인 하늘(6절)-바다(7절)-땅(8절)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위대한 창조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려준다.³³⁾ 게다가 시편 33편 6절의 ‘만상(萬象)〈콜 체바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2장의 창조기사의 마지막 부분인 2장 1절에서 언급된 단어를 다시 언급한 것이다.³⁴⁾ 창세기 2장 1절의 개역개정판의 번역은 약간 불명료하다. 〈콜 체바암〉이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וַיְכַלּוּ הַשָּׁמַיִם וְהָאָרֶץ וְכָל-צְבָאָם

“그 하늘과 그 땅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었다”(창 2:1,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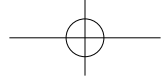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창 2:1, 개역개정)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창 2:1, 새번역)

32) A. A. Anderson, *The Book of Psalms Volume 1(1-72)*,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262; L. Neve, 윗글, 71; F.-L. Hossfeld/E. Zenger, *Die Psalmen 1 : Psalm 1-50*,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206; M. Oeming, *Das Buch der Psalmen: Psalm 1-41*,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0), 192.

33) C. J. H. Wright, 윗글, 16.

34) H. Schüngel-Straumann, 윗글, 76 각주 222.



따라서 시편 33편 6-9절을 포함하여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시편 33편 4-9절과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명백해 보인다. 그렇다면 두 본문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언급된 <루아흐>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즉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용된 <루아흐 엘로힘>이 ‘하나님의 영’으로 쓰였다면, 시편 33편 6절의 <루아흐 피브>도 ‘그의 입의 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³⁵⁾

여기서는 6a절의 ‘야웨의 말씀’ <다바르 야웨>과 6b절의 ‘그의 입의 루아흐’ <루아흐 피브>는 동의 평행법을 이루고 있다.³⁶⁾ 6a절의 ‘하늘’ <샤마임>과 6b절의 ‘만상(萬象)’ <콜 체바암>도 동의 평행법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만상’은 천체, 별들을 가리킨다(창 1:14-18; 2:1; 시 8:3; 147:4-5; 욥 38:31-32; 사 40:26).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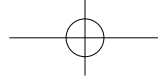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그런데 6절에서 사용된 동의 평행법은 단순히 앞 소절을 다른 용어로 다시 한 번 표현한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늘’과 ‘모든 별들’(‘모든 것들’)은 뒤 소절(‘모든 별들’)이 앞 소절(‘하늘’)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뭔가 새로운 뉘앙스(확장 혹은 구체성)를 첨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뒤 소절의 ‘그의 입의 루아흐’도 앞 소절의 ‘야웨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새로운 요소를 담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⁸⁾ ‘야웨의 말씀’은 ‘그의 입’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서 표현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야웨의 말씀 창조에 ‘영’(루아흐)이 개입되었음을 밝히고 있

35) 시 33:6의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다: 발터 아이히로트, 『구약성서신학 I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57; L. Neve,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71;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의 영”, 21-22; W. Hildebrandt, *윗글*, 41-42; C. J. H. Wright, *윗글*, 16 등. 물론 앤더슨(A. A. Anderson) 같은 학자는 명시적으로 시 33:6의 <루아흐 피브>는 ‘그의 입의 영’(the spirit of his mouth)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그의 입의 숨(the breath of his mouth)’으로 번역한다. A. A. Anderson, *The Book of Psalms Volume 1(1-72)*, 263.

36) H.-J. Kraus, *Psalmen 1-5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61989), 410.

37) F.-L. Hossfeld/E. Zenger, *Die Psalmen I : Psalm 1-50*, 209.

38)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의 영”, 21.



다. 여기서 영은 ‘창조적인 말씀의 권능’(die schöpferische Wortmacht)을 가리키며,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힘(die schöpferische Lebenskraft)이다.³⁹⁾

시편 33편의 시인은 말씀의 현실화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4절과 6절에서 이 점이 포착된다.

“4) 아웨의 말씀(드바르-아웨)은 정직하며

그의 모든 행동(마아세후)은 신실하다

.....

6) 아웨의 말씀(드바르 아웨)으로 하늘이 만들어졌고

그의 입의 루아흐(루아흐 피브)로 모든 것들(천체)이”(사역).

4절에서 ‘아웨의 말씀’(Wort)과 ‘그의 모든 행동’(Werk)이 평행을 이룬다. 이에 따르면 말씀이 행동을 통하여 현실이 되었다. 6절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아웨의 말씀’이 ‘그의 입의 루아흐’를 통하여, 즉 ‘말씀선포’(Sprechen)가 하나님의 영의 개입으로 ‘현실’(Wirken)이 되었다.⁴⁰⁾

시편 33편 6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다.⁴¹⁾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는 본래 2절의 영에 의한 창조라기보다는 3절의 하나님의 말씀선포를 통한 것이다. 창조는 말씀이 일어난 사건이다(창 1:6, 14; 시 147편 등).⁴²⁾ 시인은 여기서 말씀이 본질적으로 창조적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면서, 더 나아가 말씀의 창조

39) H.-J. Kraus, *룻글*, 410.

40) ‘말씀’(Wort)과 ‘행동’(Werk), 그리고 ‘말씀선포’(Sprechen)와 ‘현실’(Wirken)이라는 용어는 K. Koch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K. Koch, “Wort und Einheit des Schöpfergottes in Memphis und Jerusalem: Zur Einzigartigkeit Israels,” *ZThK* 62, 1965, 251-293, 특히 273.

41) L. Neve, *룻글*, 71.

42) L. Ruppert, *룻글*, 67.



성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이 <루아흐>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루아흐>를 그 말씀의 효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동적인 힘을 표현한다.⁴³⁾

3) 계속되는 창조(creatio continua)에 나타난 영

(1) 시편 104편 29-30절

“29) 당신께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그들의 티끌로 돌아갑니다

30) 당신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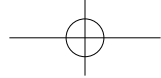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당신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사역).

시편 104편 27-30절은 이 시편의 신학적인, 정확하게 말하면 신(神) 중심적인(theozentrisch) 절정에 해당된다. 이 단락이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들의 완전한 의존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⁴⁾ 시편 104편 27절(“이 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에 따르면 아웨는 선한 아버지와 같이 창조된 세계를 돌보신다(참조. 시 145:15-16).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산다(“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8절).

29a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생명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29a절의 “주께서 그들의 호

43) H. Schüngel-Straumann, *룻글*, 77.

44) F.-L. Hossfeld/E. Zenger, *Die Psalmen III: Psalm 101-150*,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2012), 594.



흡을 거두신 즉”에서 호흡은 <루아흐>의 번역으로 여기서는 <루아흐>가 ‘인간의 숨 혹은 호흡’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학자들 간에 별 이견이 없다.⁴⁵⁾ 야웨는 생명의 주인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 상태에서만 존재한다.⁴⁶⁾ 29b절(“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은 욥기 34장 15b절(“사람은 흙<아파르>으로 돌아가리라”)에서와 같이 생명의 허무한 면을 강조한다(참조, 시 90:3).⁴⁷⁾

30절에 사용된 <루아흐>의 번역은 학자들 간에 불일치를 보인다. 대체적으로 ‘호흡/숨’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하곤 한다. 크라우스(H.-J. Kraus)는 29절의 <루아흐>를 ‘숨’(Odem)으로, 30절에서는 ‘호흡’(Hauch)으로 번역한다. 즉 <루아흐>는 ‘생명의 숨’이나 ‘호흡’으로 간주된다.⁴⁸⁾ 알버츠(R. Albertz)와 베스트터만(C. Westermann)도 이 <루아흐>는 ‘생명의 숨’(Lebensodem)으로 해석한다.⁴⁹⁾ 쉥겔-슈트라우만(H. Schüngel-Straumann)도 두 구절의 <루아흐>를 ‘생명력’(Lebenskraft)으로 번역하면서 동일한 의미로 본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번역들은 문제가 있다. 리브(L. Neve)가 정확하게 관찰하고 있듯이, 29절의 ‘그들의 루아흐’(רוּחָם)와 30절의 ‘당신의 루아흐’(רוּחֵךְ)는 구분되어야 한다. 시 104편의 시인은 인칭대명사를 통하여 전자는 ‘그들의 숨’(their breath)으로, 후자는 ‘당신의 영’(thy spirit)으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인칭대명사의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인은 이를 통하여 ‘인간 안에 있는 생명의 숨’(the life-breath in man)과 ‘유일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영’(the

45) H.-J. Kraus, *Psalmen 60-150*,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61989), 878; N. deClaisé -Walford/R. A. Jacobson/B. L. Tanner, *룻글*, 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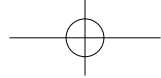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46) H.-J. Kraus, *룻글*, 885-886.

47) F.-L. Hossfeld/E. Zenger, *룻글*, 594.

48) H.-J. Kraus, *룻글*, 878.

49) R. Albertz/C. Westermann, *룻글*, 737.

50) H. Schüngel-Straumann, *룻글*, 73.



unique life-giving spirit of God)을 구분하고 있다.⁵¹⁾ 따라서 전자는 ‘생명의 숨’으로, 후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보아야 한다.

슈픽커만(H. Spieckermann)의 연구에 따르면, 30b절(“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의 진술은 “구약성서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⁵²⁾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다쉬>(שׂרַר)이다. 여기서 이 동사는 생명의 갱신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항구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창조세계에 존재하는 동물세계와 식물세계의 갱신을 다루고 있다.⁵³⁾

30절의 ‘하나님의 루아흐’는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영을 말한다. 이는 뒤이어 나오는 동사 <바라>(בָּרָא)에 의해서 표현된다.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 주어로 사용되어 신적인 창조행위만을 가리키는 전문용어(terminus technicus)이다.⁵⁴⁾ 이 구절은 <바라>와 <루아흐>가 동시에 언급된 창세기 1장 1-3절의 본문과 매우 밀접해 보인다. 30절의 창조는 창세기 1장의 창조와 유사하지만, 문맥상 과거의 유일회적인 창조사건을 재론하는 것이 아니라 야웨의 지속적인 활동을 묘사한다.⁵⁵⁾ 즉 이 구절은 ‘태초의 창조’(creatio prima, the original creation)가 아니라 ‘계속적인 창조’(creatio continua, the continuing creation)를 가리킨다.⁵⁶⁾ 여기서 하나님의 루아흐는 생명을 창조하는 힘(life-creating power)이다. 즉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갱신한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연속적인 사건이다.⁵⁷⁾ 이 시편은 지속

51) L. Neve, 윗글, 73.

52) H. Spieckermann, *Heilsgegenwart: Eine Theologie der Psalmen*, FRLANT 14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21-49, 특히 45 각주 60.

53) F.-L. Hossfeld/E. Zenger, 윗글, 594-595.

54) H. Schüngel-Straumann, 윗글, 73.

55) H.-J. Kraus, *Psalmen 60-150*, 886.

56) L. Neve, 윗글, 74; N. deClaissé-Walford/R. A. Jacobson/B. L. Tanner, 윗글, 779.

57) S. Tengström/H.-J. Fabry, 윗글, 407.



적인 창조의 보존(*conservatio*)과 관리(*gubernatio*)를 드러내고 있다.⁵⁸⁾

시 104편 전체는 영의 수여를 다루고 있다. 이 시편에서는 <루아흐>가 기상학적인 의미인 ‘바람’으로, 인간학적인 의미인 ‘인간의 호흡/숨’으로,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인 ‘하나님의 영’으로 각기 사용되고 있다. 즉 4절(“바람<루아흐>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은 ‘바람의 우주적 현상’을 말하고, 29절(“주께서 그들의 호흡<루아흐>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은 피조물(인간과 동물)의 ‘생명의 숨’을 묘사하고, 30절(“주의 영<루아흐>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은 생기를 주고 창조하는 ‘하나님의 영’을 언급한다. 이 과정의 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세 가지 모든 현상들이 야웨와 확고하게 연결되어있다. 이 점에서 시 104편은 호스펠트(F.-L. Hossfeld)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서적 성령론(Pneumatologie)의 기초석”이라 할 수 있다.⁵⁹⁾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생명체(인간을 포함한 동물세계와 식물세계)는 야웨께 의존하고 있다.⁶⁰⁾ 시편 기자는 야웨께서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보존자라는 주제를 27-30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체의 아버지시며, 그들은 그분의 가족 구성원이다.⁶¹⁾ 새로운 세대들은 이 땅 위의 모든 생명체를 계속적으로 존속시키시는 야웨의 지속적인 창조 사역의 증거다.⁶²⁾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의 영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면서 지금도 돌보시고 보존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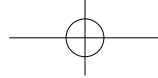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58) F.-L. Hossfeld/E. Zenger, *룻글*, 588.

59) F.-L. Hossfeld/E. Zenger, *룻글*, 589.

60) F.-L. Hossfeld/E. Zenger, *룻글*, 595.

61) L. C. Allen, *Psalms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1983), 34.

62) L. C. Allen, *룻글*, 34.



(2) 이사야 32장 15절

“마침내 영이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 위에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광야가 그 과수원이 되며 그 과수원이 그 숲이 되리라”(사역)

이사야 32장은 1-8절, 9-14절, 그리고 15-20절로 나누어진다. 1-8절은 의와 공평의 통치, 9-14절은 안일한 여인에 대한 경고, 15-20절은 영의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묘사한다. 9-14절에 나타난 심판의 위협과는 대조적으로 15-20절은 드라마틱하게 구원과 갱신의 새로운 시대로 이동한다.⁶³⁾

구원과 갱신의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의 부어짐으로부터 시작된다(15절). <루아흐 마롬>("위에서부터 영")은 <루아흐 야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롬> 곧 높이 솟아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 곧 '하늘'을 가리킨다(참조. 사 24:21).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거주지로서의 하늘을 가리킨다(참조. 삼하 22:17; 시 144:7; 사 33:5; 렘 25:30 등).⁶⁴⁾ <루아흐 마롬>이라는 표현구는 야웨를 이 땅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⁶⁵⁾ 이와 동시에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표현은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간 자신의 의지와 행동이 아니라 영의 수여로만 가능하다는 확신을 보여준다.⁶⁶⁾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인간이 노력해서 벌수 있거나 받

63) B. S. Childs, *Isaiah*,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241.

64) O. Kaiser, *Der Prophet Jesaja. Kapitel 13-39*,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31983), 265.

65) H. Wildberger, *Jesaja. 3. Teilband. Jesaja 28-3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1278.

66) R. Kilian, *Jesaja II 13-39*,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188.



아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⁶⁷⁾

여기서 저자는 에스겔과 같이 ‘새로운 영’(겔 36:26) 혹은 제2이사야와 요엘과 같이 ‘나의 영’(사 42:1; 율 2:28)이라 하지 않고 단순히 ‘영’이라고만 말한다. 그리고 동사 ‘부어지다’라는 용어도 보다 많이 쓰이는 <샤파크>(שָׁפַק, ‘붓다, 쏟아, 쏟아 비우다’) 혹은 <야차크>(צָרַק, ‘쏟아내다, 붓다, 흘러나오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드물게 사용되어 <아라>(עָרָה)(‘드러내다, 비우다, 쏟아 내다’)이다. 이 용어는 아직 확고히 굳어진 표현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의 부으심은 종말론적인 사건의 첫 번째 국면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이 구절은 <아드>(עַד, until)라는 단어에 의하여 종말론적인 변혁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직은 전형적인 종말론적 개념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묵시문학적 세계상이나 역사상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영은 단순히 사건을 일으키는 힘을 가리킨다.⁶⁸⁾

또한 여기서 <아라>(עָרָה) 동사는 영이 마치 물과 같은 물질이라도 되는 것처럼 영의 본성(nature)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 것도 아니다. 이는 고난 받는 종이 “그의 생명을 죽기까지 모두 쏟아내다”<לְמוֹת נַפְשׁוֹ הִעָרָה, 사 53:12>라는 구절과 연관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당신의 백성(나라) 위에 다 비울 정도로 남김없이 쏟아 부는 것과 같이 영이 충만하고 충분하게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영의 무조건적인 부으심을 막을 수 없다.⁷⁰⁾ 야웨의 영이 백성 위로 거침없이 남김없이 넘치도록 쏟아진다.

이 영은 에스겔 37장 6절과 이사야 44장 3절에서와 같이 특별히 ‘생명

67) G. V. Smith, *Isaiah 1-39*,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ennessee: Publishing Group, 2007), 546.

68) H. Wildberger, *율*, 1277.

69) L. Neve, *율*, 76-77.

70) Wonsuk Ma, *Until the Spirit Comes: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JSOTS Series 27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80-81.



을 부여하는 힘'이다. 예언자는 영이 '우리 위에' 부어진다고 말하지만 에스겔과 요엘에서와는 다르게 우선 백성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사야 32장 15절은 '마음의 갱신'에 대해서도, 또한 시편 51편 10절, 12절의 의미("정직한 영", "자원하는 영")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변화되는 것은 인간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주변상태이다.⁷¹⁾ 이점은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 자세히 묘사된다.

16절 이하는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으로 시작된 미래의 구원을 강조한다. 새로운 시대는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가 변화되는 결과로 주어진다. 공평<미쉬파트>와 의<체다카>가 하나님이 주신 변화의 특징이다. 이 용어들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메시아 시대를 표현하는 친숙한 어휘들이다. 그 강조점은 특히 새로운 시대의 평화, 안전, 그리고 자유에 주어진다(참조. 사 30:23 이하). 자연과 사회 두 영역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사야의 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특징이기도하다(사 2:1 이하).⁷²⁾

자연은 갱신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생산력의 증가뿐만 아니라 광야가 기름진 땅으로 완전히 변화됨을 통하여 주어진다.⁷³⁾ 모든 피조물이 태초에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선물을 받았듯이, 그리고 자연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과 더불어 고난을 당해야 하듯이(사 32:10-14), 여기서 자연은 다시금 영의 부어짐으로 초래되는 창조의 갱신을 공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갱신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이 단락은 사실 국가의 갱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스라엘 사회의 갱신의 결과들은 공평, 의, 평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16-18절). 이것은 파라다이

71) H. Wildberger, *룻글*, 1277-1278.

72) B. S. Childs, *룻글*, 241.

73) Wonsuk Ma, *룻글*, 81.



스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⁷⁴⁾ 즉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 창조의 세상(창 1:31)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처음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된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본래의 세상을 회복한다.

15b절과 16절은 황폐된 영역이 기름진 땅으로 변형되는 것과 공평과 의가 확립되는 것은 모두 영의 작용이라는 메시지를 확고히 한다.⁷⁵⁾ 여기서 영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transforming power)”으로 나타난다.⁷⁶⁾

여기서 물질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생명의 수여자인 하나님의 영은 물질적인 갱신과 영적인 갱신을 나누지 않고 함께 부여하신다. 이점은 특히 공평과 광야, 그리고 의와 아름다운 밭이 연결되는 16절에서 잘 드러난다. 이 단락은 영에 의해서 영감 된 새로운 생명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혹은 사람과 자연으로 날카롭게 구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모든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든 자연의 생명이든 모두 영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의 영은 유일한 생명의 수여자로서 이사야 32장 9-14절에서 언급된 파괴와 죽음 이후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생명을 선사한다.⁷⁷⁾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겔 36:26-27; 욥 2:28-29) 자연계에도 작용하신다.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는 영은 “땅의 회복”(16절)과 “사회 정의의 회복”으로 나타난다(17절).⁷⁸⁾ 이는 이상적인 파라다이스의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 세상을 회복하는 영이다.

74) L. Neve, 앞글, 76.

75) W. A. M. Beuken, *Isaiah II, Volume 2: Isaiah 28-39*,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2000), 234.

76) Wonsuk Ma, 앞글, 81.

77) L. Neve, 앞글, 76.

78)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262, 2000(봄호), 117-145, 특히 133-134.



4. 나오는 말

구약성서에서 <루아흐>가 창조의 영으로 사용된 본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1장 2절, 시편 33편 6절, 104편 29-30절, 이사야 32장 15절이다. 앞의 두 본문은 처음 창조에 나타난 영<루아흐>에 대하여 다루고, 뒤의 두 본문은 계속되는 창조에 나타난 영<루아흐>을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역하여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의 영'으로 암시적으로 묘사된다. 창조의 영은 창조적인 말씀의 동역자이다. 즉 영은 말씀의 동역자이다. 시편 33편 6절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암시적으로 묘사된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시인은 여기서 말씀의 창조성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영임을 밝힌다. 여기서 영은 말씀의 효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동적인 힘이다. 영은 추상적인 말씀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현실화한다. 영은 말씀을 사건으로 만드는 힘이다.

시편 104편 29-30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으로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을 지속적으로 창조하시면서 지금도 돌보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을 창조하는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지속적으로 창조하며 갱신한다. 즉 영은 지속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영이다. 이사야 3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계에도 작용한다. 하나님의 영은 땅을 회복하고 사회정의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영은 역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처음 세상을 회복하는 권능이다.

구약에 나타난 창조의 영은 처음 창조에서는 창조적인 말씀의 동역자이며(창 1:2), 말씀을 사건으로 만드는 힘이다(시 33:6). 또한 이러한 창조의 영은 계속되는 창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을 창조하며(시 104:29-30), 역사를 새롭게 함으로 처음 세상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다



(사 32:15).

5. 참고문헌

김정우. “창조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 창조의 영,” 「신학지남」 239, 1994(봄호), 11-30.

김정우. “이사야서의 성령론,” 「신학지남」 262, 2000(봄호), 117-145.

민영진. “구약성서의 영(rûach) 이해,” 「신학사상」 31집, 1980, 617-637.

아이히로트, 발터. 『구약성서신학 II』,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 이제스트, 1994.

윤형. “성령의 원역사에 나타난 노동과 주권(창 1-11장),” 「구약논단」 41집, 2011, 136-157.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창세기 1장 1절-2장 4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50집, 2013, 117-143.

이은우. “창세기 1장 1절-2장 4a 절의 수사학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 리,” 「구약논단」 44집, 2012, 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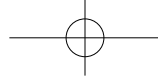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이희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창세기 1-11장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차준희. 『구약사상 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Albertz, R./Westermann, C. ruah Geist, *THAT* II, 1984, 726-753.

Allen, L. C. *Psalms 101-150*,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1983.

Anderson, A. A. *The Book of Psalms Volume 1(1-72)*,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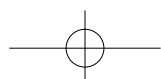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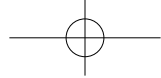
- Beuken, W. A. M. *Isaiah II . Volume 2: Isaiah 28-39*,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2000.
- Childs, B. S. *Isaiah*, The Old Testament Library,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 deClaisse-Walford, N./Jacobson, R. A./Tanner, B. L. *The Book of Psalms*, Th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4.
- Even-Shoshan, A.(ed.),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Using the Hebrew and Aramaic Text*, Jerusalem: Kiryat Sefer Ltd, 1993.
- Görg, M. "Religionsgeschichtliche Beobachtungen zur Rede vom 'Geist Gottes'," *Wissenschaft und Weisheit* 43, 1980, 129-148.
- Hildebrandt, W. *An Old Testament Theology of the Spirit of God*, Peabodt, Massachusetts: Handrickson Publishers, 1995.
- Hossfeld, F.-L./Zenger, E. *Die Psalmen I : Psalm 1-50*,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 Hossfeld, F.-L./Zenger, E. *Die Psalmen III : Psalm 101-150*,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2012.
- Jacobson, D. "Psalm 33 and the Creation Rhetoric of a Torah Psalm," in: R. L. Foster/D. M. Howard, Jr.(eds.), *My Words Are Lovely*, LHB/OTS 467; New York: T. & T. Clark, 2008, 107-120.
- Kaiser, O. *Der Prophet Jesaja. Kapitel 13-39*,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 Kilian, R. *Jesaja II 13-39*, Die Neue Echter Bibel, Würzburg: Echter Verlag, 1993.
- Koch, K. "Wort und Einheit des Schöpfergottes in Memphis und Jerusalem: Zur Einzigartigkeit Israels," *ZThK* 62, 1965,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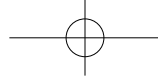
293.

- Kraus, H.-J. *Psalmem 1-5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61989.
- Kraus, H.-J. *Psalmem 60-150*,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61989.
- Ma, Wonsuk. *Until the Spirit Comes: The Spirit of God in the Book of Isaiah*, JSOTS Series 271,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Moscatti, S. "The Wind in Biblical and Phoenician Cosmogony," *JBL* 66 (1947), 305-310.
- Neve, L. *The Spirit of God in the Old Testament*, Tokyo: Seibunsha, 1972.
- Oeming, M. *Das Buch der Psalmen: Psalm 1-41*, Neuer Stuttgarter Kommentar Altes Testament,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0.
- Rechenmacher, H. "Gott und das Chaos: Ein Beitrag zum Verständnis von Gen 1,1-3," *ZAW* 114, 2002.
- Ruppert, L. *Genesis: Ein kritischer und theologischer Kommentar. 1. Teilband: Gen 1,1-11,26*, Forschung zur Bibel 70, Würzburg: Echter Verlag, 1992.
- Schmidt, W. H. *Die Schöpfungsgeschichte der Priesterschrift: Zur Überlieferungsgeschichte von Genesis 1,1-2,4a* WMANT 17,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31973.
- Schüngel-Straumann, H. *Rûach bewegt die Welt: Gottes schöpferische Lebenskraft in der Krisenzeit des Exils*, Stuttgarter Bibelstudien 151,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1992.
- Schüle, A. *Die Urgeschichte(Gen 1-11)*, Zürcher Bibelkommentare,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2009.





- Smith, G. V. *Isaiah 1-39*,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Tennessee; Publishing Group, 2007.
- Smith, J. M. P. *The Use of Divine Name as Superlatives*, AJSL 45, 1928/29.
- Spieckermann, H. *Heilsgegenwart: Eine Theologie der Psalmen*, FRLANT 148,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Stamm, J. J./Ben-Hayyim, Z./Hartmann, B./Reymond, Ph. H.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con zum Alten Testament*, Lieferung IV, Leiden: E.J. Brill, 1990, 1117-1121.
- Steck, O. H. *Der Schöpfungsbericht der Priesterschrift. Studien zur literarkritischen und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n Problematik von Genesis 1,1-2,4a*, FRLANT, Göttingen: Vandenhoeck, ²1981. Fabry, H.-J. מִן
- Tengström, S./Fabry, H.-J. *TbWAT* 7, 1993, 385-425.
- von Rad, G. *Das erste Buch Mose/Genesis*, Das Alte Testament Deutsch,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²1987.
- Waltke, B. K./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 1990.
- Wenham, G. J. *Genesis 1-15*, Word Biblical Commentary, Waco, Texas: Word Books, 1987.
- Westermann, C. *Genesis 1-11*,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³1983.
- Wildberger, H. *Jesaja. 3. Teilband. Jesaja 28-39*, Biblischer Kommentar Altes Testamen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 Wright, C. J. H. *Knowing the Holy Spirit through the Old Testament*, Oxford, UK; Monarch Books, 2006.



검색어

루아흐

창조의 영

태초의 창조

계속적인 창조

창세기 1장 2절

The Spirit of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Jun-Hee C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Among the texts where <ruach> is used, this study focuses on those in which <ruach> means the Spirit of God. It particularly analyses the meaning of the creation of God among the activities of the Spirit of God. The represented texts in which <ruach> is regarded as the Spirit of Creation in the Old Testament are Genesis 1:2, Psalms 33:6, 104:29-30, and Isaiah 32:15. The first two texts deal with the Spirit shown in the original creation (*creatio prima*), and the last two are mentioned in the continuing creation (*creatio continua*).

In Genesis 1:2, the Spirit of God is allusively described as ‘the Spirit of Creation’ that creates the world, cooperating with the Word of God. The Spirit of Creation is the co-worker of the creative Word. Psalm 33:6 clearly shows what is alluded to in Genesis 1:2. The psalmist here



elucidates that the Spirit concretely actualizes the creativity of the Word. That is, the Spirit is the power to make the Word an event.

In Psalm 104:29-30, the Spirit of God as the power that creates life, continuously creates and renews all lives in the world. That is, the Spirit is the Spirit that consistently creates life. In Isaiah 32:15, the Spirit of God works not only within human beings but also in the natural world. The Spirit of God is the power that renews history, and it is the Spirit that restores the first world, which God saw as very good.

Keywords

ruach

the Spirit of Creation

creatio prima, the original creation

creatio continua, the continuing creation

Genesis 1:2

- 투고일: 2015년 01월 01일
- 심사일: 2015년 01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5년 02월 06일